

LG이노텍, 일본에 LED연구소 설립

첨단 부품소재 연구개발 ... 2012년까지 100억원 투입 설비·인력 확충

LG이노텍은 일본 Yokohama에 LED(Light Emitting Diode) 및 PCB(인쇄회로기관) 패키지, 광학 등 첨단 부품소재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

LG이노텍은 2012년까지 1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.

부품소재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연구인력을 흡수하고 LG전자 및 LG디스플레이 일본 법인과 사업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다.

또 현지 대학과의 산·학협력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.

LG이노텍은 7월 도쿄(Tokyo)에서 현지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일부 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6/22>